

암 사망자 5명 중 1명 호스피스 이용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 가족 만족도 높아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선택권 넓어져

2017년 암으로 사망한 환자 5명 중 1명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담은 '2017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발간했다.

호스피스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암 사망환자 7만8863명 중 1만7317명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해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이 22%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말 기준 17.5%에서 4.5%p 상승한 것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치를 보였다.

암 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한 전체 대상질환 사망자의 경우에는 8만6593명 중 20%인 1만7333명이 이용했다.

호스피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이용자 1만7333명 중 입원형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는 1만5123명으로 87.2%를 차지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는 565명(3.3%), 자문형 호스피스만 이용한 환자는 535명(3.1%)이었다.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를

함께 이용한 환자는 794명, 입원형과 자문형을 함께 이용한 환자가 225명, 가정형과 자문형을 함께 이용한 환자가 40명, 입원형·가정형·자문형을 모두 이용한 환자는 51명이었다.

그동안 입원형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에 가정형, 자문형이 추가되면서 환자와 가족의 돌봄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입원형만 이용한 경우보다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함께 이용했을 때 이용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입원형 이용자 15일, 입원형·가정형 이용자 33일,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모두 이용자 32일이었다.

호스피스 이용자 중 사망환자의 사망 장소에 대한 분석결과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중 가정에서 사망비율은 25.4%로, 같은 해 전체 암 사망자의 가정사망률(6.2%)과 전체 사망자의 가정사망률(1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자는 일반병동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약 50%가 이용 중인 급성기 병동에서 사망하고, 45.7%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장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의 사별 가족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7%로 전년 93%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100점 환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90점), 환자 호소에 대한 경청(88점), 가족에 대한 도움(87.3점), 향후 계획에 대한 상담(86.7점) 등에 대한 만족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유형별 호스피스 제공기관 등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중앙호스피스센터장은 "이번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은 입원형 외에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분석한 첫 번째 자료로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의 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김상희 국회의원 초청 간호정책 간담회

경기도간호사회, 간호현안 건의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부천시간호사회(회장 백정희)와 함께 김상희 국회의원 초청 간호정책 간담회를 2월 28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백정희 부천시간호사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분야별 간호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련 부천시간호사회 부회장이 보건의로 및 간호정책을 제안하고, 회원들이 간호현장에서 느끼는 현안 문제에 대해 건의했다.

김상희 국회의원은 "광범위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호계의 숙제를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환자·의료인 안전 등 지원 강화키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고, 인력확충, 환자·의료인 안전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260여개다.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포

함된다. 보험 적용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일반 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 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응급·중환자진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절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혜진 기자 hjjoo@

장기이식 위해 3만명 이상 대기

기증희망등록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신청

우리나라는 현재 3만명 이상의 장기이식대기자가 있으나, 뇌사기증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뇌사자 515명을 포함해 총 2897명이 장기기증을 통해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장기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 2016년 3만2866명, 2017년 3만4187명으로 현재 3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장기기증자 현황을 살펴보면 뇌사기증자는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 2017년 515명으로 나타났다. 생존 시 기증자는 2015년 2004명, 2016년 2209명, 2017년 2338명이었다. 사후 각각 기증자는 2015년 64명, 2016년 83명, 2017년 4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 기증자는 2015년 2569명, 2016년 2865명, 2017년 2897명으로 집계됐다.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 뇌사기증자가 2015년 135명, 2016년 157명, 2017년 77명이었으며, 사후기증자가 2015년 138명, 2016년 128명, 2017년 51명이었다. 생존 시 기증자는 2015년 1292명, 2016년 1691명, 2017년 1185명이었다. 이처럼 인체조직기증은 2017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

로 나타났다. 기증희망등록 현황을 보면 2017년 12만5104명이 신규로 등록해 기증희망자 누적인원은 전체 207만8473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장기기증 138만279명, 인체조직 36만8783명, 골수 32만9411명이다.

한국의 뇌사기증율은 인구 100만명당 9.95명으로 스페인 46.9명, 미국 31.9명, 이탈리아 28.2명, 영국 23.0명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생존기증률은 인구 100만명당 44.2명으로 스페인 7.5명, 미국 19.2명, 이탈리아 5.4명, 영국 15.6명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기희망등록은 본인인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하거나, 보건소·의류기관 등 등록기관에 방문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장기이식관리센터로 우편 또는 FAX로 보내도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주혜진 기자 hjjoo@

지난해 화장률 84.6% ... 1993년 대비 4.4배 증가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화장률이 84.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약 4.4배 상승하고, 전년도 화장률보다 1.9%p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87.2%, 여성 81.6%로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6.2%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82.2%로 나타났다.

화장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70대와 80대 이상에서 전년에 비해 각각 3.1%p, 2.7%p가 상승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세를 보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화장률을 보면 부산이 9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 92.4%, 울산 90.8%, 경남 90.5% 등 9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경남)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9.4%, 충남 71.5%, 경북 74.8%, 충북 75.1% 등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9.0%로 비수도권 지역 81.7%보다 7.3%p 높았다.

주혜진 기자 hjjoo@

외국인환자, 한국 의료서비스 만족도 높아

환자 존중적 서비스, 간호서비스 등에 만족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90점대 수준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0.5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의 국적별 만족도를 보면 러시아가 94.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아시아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 92.5점, 미국 91.8점, 중국 90.1점, 동남아시아 89.8점, 중동 89.5점, 몽골 85.2점, 일본 84.0점 순이었다.

조사 항목별로는 의료진의 환자 존중적 서비스 등 직원 서비스(92.7점)와 간호서비스, 코디네이터서비스, 통역 등 병원 편의(92.3점)가 가장 높았다. 진료비(85.8점), 의사소통 및 환자존중(89.8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93.3%는 다시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

며, 94.8%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 기술(41.5%), 의료진의 명성(18.4%), 외국어 서비스(13.0%) 등의 순이었다.

한국 의료기관 선택 경로는 가족 및 지인 추천(55.2%)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17.1%), 병원 추천(16.1%)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혜선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7년 기준 약 32만명에 이른다고 하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기억과 기록이 만난 에세이

달나라로 간 소신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 따뜻한 글이 뭉클함을 주기도 하지만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문화일보** | 2018.10.12
- 어린 날에 대한 회상기를 비롯해 건강한 가족 가치를 담고 있는 산문이다. **조선일보** | 2018.10.27
- 저자가 풀어내는 가족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다. **세계일보** | 2018.11.3
-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의 일상은 존귀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운다. **서울경제** | 2018.11.16
- 사랑의 문맥이 행간의 여백에 향훈처럼 스며있어 읽는 즐거움을 준다. **충북일보** | 2018.11.20
- 1인 가구 시대 속에 가족의 이야기로 소중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 2018.11.22
- 행복으로 가는 기억과 기록 이야기에 공감할 것 같다. 기쁘거나 혹은 아프거나... **Queen** | 2018.12.4
-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신기루 같은 행운을 찾아 시간낭비 하지 않기를 조언하는 책이다. **서울신문** | 2018.12.7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 메시지

처음에는 그저 가계도나 그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 A4 용지 서너 장이면 족할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던 것에 어린 딸들 읽기 쉽게 하겠다고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 지극히 개인적 소사(小事)에 어설문체(文體)라 무엇을 어찌할 바가 아니었는데 "교육칼럼보다 재미있다"는 주변의 지나가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소신을 뒤로하고 달나라로 간 것이다.

_ 저자 서문에서

'가족 가치'에 대한 든든한 인식

《달나라로 간 소신》은 작가가 신문기자로서의 비판적 관음과 현실주의 사회의식을 표방해도 오히려 정서적으로 푸근하고, 설명하기 힘든 심미적 아름다움을 연연하게 거느린다. '가족 가치'가 빛어내는 건강한 사람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사랑이 문맥의 뒤에서 또는 행간의 여백에서 향훈(香薰)처럼 스며든다. 그게 바로 이 산문집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_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 발문에서



이낙진 저음
지식과 감성 / 1만3000원
유명서점·인터넷서점 판매



달나라로 간 소신 을 검색하세요.